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2월 3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5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희 부부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장 기 속 -

저는 집안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집안 어른 모르게 교회에 다니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 몰래 자주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결혼하고 임신하자 저는 태교를 위해 마음가짐과 언행 등을 조심하면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아이를 갖고 싶어요. 자랄수록 예쁘고 착하고 지혜로운 아이, 엄마 아빠의 단점은 닮지 않고 좋은 점만 닮았으면 좋겠어요.”하고 기도하며 뱃속의 아기를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 안 되어서 안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마침 전도하러 오신 은혜와진리교회 전도사님을 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예배생활의 중요함을 강조하여 말씀하며 저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은혜와진리교회에 가서 교적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주일예배와 주중예배는 물론이고 구역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 한 말씀대로 은혜로운 설교말씀을 들으며 전과 다르

게 하루하루 저의 믿음이 자라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둘째아이를 갖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둘째를 낳게 해달라고, 기왕이면 튼튼하고 씩씩하고 착한 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구역의 권사님, 구역장님들도 저의 이런 소망을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를 낳고 몇 년이 흐른 후 저희 부부는 사업장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갈수록 운영이 힘들어져서, 남편은 다시 직장을 찾아 취업하여 일하고 저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면서 저는 다시 교회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해지고 자주 예배를 빠지게 되는 대신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도 불화하는 일이 잦아져서 급기야 이혼까지 생각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말씀과 교역자님과 신앙이 독실한 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다.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간 곳이 무당의 집이었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바로 뛰쳐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다음부터 저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극도의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다. 삼키지 못해서 밥을 먹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다. 전에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나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나 금방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곤 했는데 성도답지 않았던 생각과 행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질 않았습다. 어떤 때는 중한 병에 걸려 생사를 오가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을 정도로 괴로웠습다.

그런 저를 위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자세로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신유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실 때 눈에서 눈물이 났습다. 하나님은 ‘한없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또한 ‘한없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저의 공황장애 증상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여성봉사연합회에 속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어느 때부터 귀가 잘 안 들리더니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았으나 병명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의 머릿속에 종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대부분은 악성이 아니라며 정밀검사 결과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악성이 아닌 ‘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혹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데 수술은 잘못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먼저 시술치료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았으나 혹이 줄어들지 않고 커져서 부득이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만 받으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민한 부분은 제거하지 못했고 어지럼증과 울렁증과 삼킴장애 등으로 남편은 더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도, 저도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에서 제직 임명예배를 앞두고 청원서를 받았습다. 그러자 평소에 안수집사 직분을 사모하던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면서 서원하는 마음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0일 안수집사로 임직되었습니다. 남편은 존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그 전에 세 차례 수술을 받을 때까지 줄어들지 않던 혹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사에서 이제 더는 혹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지금 아무런 아픈 증상이 없습니다.

남편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남편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더 굳세어진 믿음으로 수구역장의 직분을 수행하며 기쁨으로 여성봉사연합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며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등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명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창로102번길 56(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들로 55(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1권 (제5단원 : 예수님의 가르침)

(제29과) 잃은 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 본문 : 누가복음 15:1-7
- 요절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 찬송 : 335장(새찬송가 277장), 442장(새찬송가 569장)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의 장이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잃은 양의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동정하셔서 그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들의 병든 영혼과 생활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길 잃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은 아무리 추한 죄인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공과에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잃은 양의 비유를 배움으로 길 잃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팔레스틴에서 양을 칠 때에는 목자 없이 양만 방목하는 일이 없는데 이는 그곳은 풀과 물이 적기 때문에 목자가 푸른 풀밭이 있는 곳과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은 먹이와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 먹히거나 위험한 곳에서 생명을 잃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순종하고 따라야만 양은 푸른 목초와 마실 시냇물에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사나운 맹수나 도적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로서 그의 양떼인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마치 목자를 떠난 양처럼 그 영혼이 매마르고 곤고하며 사단으로부터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맙니다.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아서 험난한 골짜기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도 있어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영혼에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풍성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험난한 인생의 나그네길 일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므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시 23:1).

2.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한 마리의 양일지라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양들을 살핍니다. 그렇지만 더러 목자의 음성과 그 보살핌을 싫어하여 양떼를 떠나는 양이 생겨납니다.

이런 양들은 좀 더 넓은 곳으로 마음껏 다녀보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기회를 엿보아 멀리 이탈해 나가지만 머지않아 저 혼자 외따로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나운 맹수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굶주림에 지쳐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잃은 양은 도저히 혼자 힘으로 목자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양떼 중에서 한 마리가 없는 것을 알아챈 목자가 절망 가운데 처한 그 양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목자는 산을 넘고 냇물을 건너고 절벽을 기어 오르내리며 가장 위험스러운 곳부터 찾아 살피면서 결코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병들고 보잘것없는 양일지라도 끝까지 찾아 헤맵니다. 마치 부모가 잃은 자식을 찾아 헤매듯 마음 졸이며 고단함도 잊고 해지는 줄도 모르고 애타게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었습니다(사 53:6).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길 잃은 한 자녀도 그냥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기근에 굶주리고 저주의 가시덤불에 걸려서 찢기어 고통하며 몸부림치는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짓고 불의하며 세상에서 멸시받는 상처투성이인 세리와 창기들일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찾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3.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매우 기뻐하며 그 양을 품에 안고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으로 인한 것보다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도로 찾은 것으로 더욱 크게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목자의 품에 안긴 양은 더 이상 길 잃어 방황할 일이 없고 사나운 맹수의 두려움이나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는 곳에서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듯이, 죄인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 비로소 다시 그 영혼이 방황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어 인생을 즐겁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방황하는 잃은 양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도 죄와 사단과 저주 아래서 탄식하며 슬픔 가운데 헤매는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잃은 양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 28:19). 2천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좇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잃은 양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고로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웃들의 모습에서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회상하고 그들을 찾아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되도록 전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울진,전주호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김포,장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리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